

각 구역 윗 던질 때마다 함성과 아쉬움 터져

필라 홀리 엔젤스 성당, 정월 대보름 구역 대항 척사대회



필라홀리 엔젤스 한인성당은 정월 대보름 구역 대항 척사대회를 지하 친교실에서 개최하였다.

【필라델피아】 홀리 엔젤스 한인 천주교회(주임 이효인 펠릭스 신부)는 지난 16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정월 대보름 구역 대항 척사대회를 지하 친교실에서 개최하였다. 이효인 펠릭스 신부는 "척사대회는 우리 교구의 전통문화를 계승

하고 각 구역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공동체의 발전을 기원하는 연례행사"라고 말하며 이 대회를 준비한 신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눈 폭풍이 계속된 여파로 아직도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교회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

넘은 알렌타운 구역까지 17개 전 구역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가로 열기를 더했다. 이날 각 구역장들이 마련한 음식 바자회에서 판매한 국밥, 두부 김치, 떡볶이, 빈대떡, 순대, 만두 등 교향에서 맛보던 점심식사로 고국

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올해도 대보름 달처럼 밝고 둥근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덕담을 서로 건넸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교회 부설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데 쓰여진다. 이어서 열린 척사대회는 각 구역에서 4명씩 참가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푸짐한 상품들이 더욱 흥을 돋우었다. 8개의 윗판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구역마다 출전한 선수들과 응원하는 구역원들의 화합과 일치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결승전이 치러지는 동안 윗을 던질 때마다 함성과 아쉬움이 터져 나오며 구역원들의 간절함 속에 서로 단결하고 하나로 뭉치는 소중한 하루였다.

한편 올해 분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전신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목주기도 40만 단 봉헌과 성경통독,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 특강 및 상담(5월 30일부터 6월 1일), 성지순례(그리스, 이태리, 이스라엘), 분당 40년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 등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 양경숙 미셀

여러분과 함께함이 위로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당 김명식 신부 부임미사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당의 김명식 신부가 부임미사 중 성체분배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는 지난 16일(일) 제 8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춘천교구)의 부임미사와 신종 5주기를 맞이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

다. 김명식 신부는 강론을 통해 "오늘 같이 화창한 날씨에 오클랜드 한인 성당 교우들과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사에 입고 나온 제의는 제가 첫

미사 때 입었던 제의이다. 거의 30년 전에 대구의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선물로 준 제의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수녀들이 저에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축가를 불러주었다.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이지만,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또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렵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를 위로 해줍니다'란 아모스님 성인이 주교직을 수락하면서 말한 한대목을 인용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미사 중에는 사목회장 채성일 토마스과 화동이 김 신부께 환영의 꽃다발을 증정하였고, 미사 후 친교실에서 케이크커팅과 환영식이 있었다.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현지적응 프로그램인 북미주 사제연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천종욱 다니엘

【토론토】 토론토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회(주임 최규식 그레고리오 신부) 양업회는 지난 15일 저녁 발렌타인 데이 파티를 가졌다. 양업회는 65세부터 75세까지 고령의 연령층 그룹으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친목단체이다. 파티는 1부에서는 황윤 베네딕도 형제의 사회로 발렌타인 데이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회장 지수환 스테파노의 인사말이 있었다.

지수환 스테파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발렌타인 데이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날이라는 인식을 넘어 새롭게 은퇴 생활을 보내는 우리 고령 세대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 돈벌이와 자녀를 교육에 온 정신을 다 쏟느라, 정말 가장 사랑해야 할 배우자에게 너무 소극적이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고 이제부터라도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임회장 이종현 시몬의 지난 9년 동안 양업회 발전과 친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음에 대한 감사와 증정이 있었다.

은퇴 후 삶을 부부간에 더한 사랑으로

토론토 성 김 안드레아 성당 양업회, 발렌타인 데이 파티



성 김 안드레아 성당 양업회 발렌타인 데이 파티에 참가한 부부들이 춤추고 있다.

2부에서는 서기문 프란치스코하 비에르 형제의 사회로 재미있는 게임과 변장업 안드레아, 수자 벨라

땃다 부부 팀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뽕뽕으로 춤을 추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기사/사진 제공: 지수환 스테파노

동북부 사제협의회

일시: 2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뉴저지 성 마이클 성당 <의제>

▲ 2014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북미주 사제협의회 총회 개최.
장소: 마리안 슈라인 <부서별 보고>

▲ 동북부 사제협의회 - 2014년 1월 사제협의회 동계 연수에 대하여 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올해 여름 연수는 감성전 마테오 신부님께서 장소를 물색하기로 함.

▲ 푸르실로 신년 교례회는 2015년부터 뉴욕, 뉴저지 소재 성당에서 미사를 시작으로 열기로 함.

- 올해 여성 푸르실로 교육은 장소 사정으로 수강생을 31명으로 제한함.

- 지구 울프라이는 7월 4일에 하기로 함.

▲ ME주말 부부는 연 2회로 5월과 8월에 있음.

- 주말 부부의 홍보를 위해 주말 부부 전, 각 분당으로 대표부부를

파견할 예정.

▲ 성령봉사회는 앞으로 동북부 신자들을 위하여 각 분당 기도회 뿐만 아니라 전신자들의 영성 발전을 위하여 성령 세미나도 전신자 대상으로 기획할 예정.

▲ 가톨릭방송 - 가톨릭방송 후원의 밤 행사는 5월 1일로 계획 중.

- 가톨릭방송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신부님하에 평신도 사장을 영입하는 것을 고려 중.

- 평신도 가톨릭방송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지도신부님과 동북부 사제단이 임명함.

▲ 성소후원회 - 성소후원회에 주신 성령봉사회의 지원금에 감사드립니다.

▲ 2014년 청소년 미션 트립(Mission Trip) - 4월, 5월 사이 지도신부님과 디렉터가 현지 답사할 예정.

장 소: 멕시코 Campeche
일 시: 2014년 8월8일-16일(8박9

일)
대 상: 고등학교(9-12학년)
참가비: \$1,500
신청 마감: 2014년 3월30일

<기타>
▲ 그레잇넥 성당에서 동북부 청년 농구대회를 6월 경에 개최할 계획임.

- 4월 21일(월)에 그레잇넥 성당에서 동북부 사제협의회 신부님들을 열마오로 초대함.

▲ 김성진 신부님과 이승용 신부님 지도하에 수도 영성의 발자취를 따라 피정을 겸한 서유럽 수도원 순례를 계획하였음.

일 시: 9월25일-10월7일(12박13일)
장 소: 독일,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수도원

참가비: \$3,960
모집인원: 35명

<공지>
▲ 다음 모임 3월 4일(화) 오전 11시, 스테른 아일랜드 한인성당.



Amen. Veni, Domine Jesu!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추기경 서임을 축하드립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임 신부 : 김종욱(미카엘)
보좌 신부 : 김기환(루카)
분당 수녀 : 이 아그네스, 안 다니엘
사목 회장 : 손순희(시몬)

www.standrewkim.org
sakoffice@gmail.com

사무실 : (301) 260-1981
팩 스 : (301) 260-1983
주 소 :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